

鄉藥救急方에 對한 考證

신 영일*

A research on Hyang-Yack-Ku-Keup-Bang(鄉藥救急方) (Restoration and Medico-Historic Investigation)

Sheen Yeong Il

Major in Classic and History of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Hyang-Yack-Ku-Keup-Bang(鄉藥救急方) is our own, medical work written about the middle of the time of Korea Dynasty. I restored and researched this book because it needed to be illuminated about its medico-historic value and then I came to some conclusions as follows.

1. Hyang-Yack-Ku-Keup-Bang was published in Dae-jang-do-kam(大藏都監) of Kanghaw island(江華島) about the middle of Korea Dynasty. Choi Ja-ha(崔自河) republished it on original publication ground in Euiheung(義興) of Kyungsang-Province(慶尙道) in July, Taejong's(太宗) 17th year of Chosen Dynasty (A.D.1417) and this book was published again in Chungcheng Province(忠淸道) in Sejong's(世宗) 9th year(A.D.1427). The book published in Taejong's days was in the possession of books department of Kung-nae-cheng(宮內廳) in Japan and was the oldest medical book of existing ones.

2. Bang-Jung-Hyang-Yack-Mock-Cho-Bu(方中鄉藥目草部) of this book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adjusted in each division with the title of Bang-Jung-Hyang-Yack-Mock(方中鄉藥目). But Herb part(草部) only followed editing progress of Jeung-Lew-Bon-Cho(證類本草), the rest is not divided into each part and is together arranged at the below of Herb part with the title of Bang-Jung-Hyang-Yack-Mock-Cho-Bu. The Korean inscriptions on some drugstuffs in this book are different between Native Name(鄉名) of three volumes of provisions and general-spoken(俗云) of Bang-Jung-Hyang-Yack-Mock-Cho-Bu. In this,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shing time and editor of the volume of provisions and Bang-Jung-Hyang-Yack-Mock-Cho-Bu are different. I think Choi Ja-ha compiled this behind three volumes of provisions when he published.

3. This book picked some prescriptions which consisted of obtainable drugs with ease in Korea in the books of Chen-Keum-Yo-Bang(千金要方), Oi-Dae-Bi-Yo(外臺秘要), Tae-Peong-Sung-Hye-Bang(太平聖惠方), Ju-Hu-Bang(肘後方), Kyung-Hum-Yang-Bang

*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經驗良方), Bo-Je-Bon-Sa-Bang(普濟本事方), Bi-Ye-Baik-Yo-Bang(備預百要方) and so on and got together our own prescriptions. On the whole Bi-Ye-Baik-Yo-Bang was a chief reference book. On this, other books were referred to and corrected.

4. In provisions quoted from Hyang-Yack-Jip-Sung-Bang(鄉藥集成方), there are seven provisions: leg-paralysis part, coughing part, headache part, obstetrics part, etc. don't show in this book. This is why Choi Ja-ha published only certain texts on Dae-jang-do-kam edition his own possession. So we can think the existing edition has a little misses compared with original edition.

5. This book recorded only names of drugstuffs in animal drug department like fowls, crab, goldbug, earthworm, etc. and didn't tell us ways of taking those. This is effect of Buddhist culture on medicine. This is efforts to practice "Don't murder":one of Five Prohibition of Buddhism.

6. Because this book was published at the time, when our originative medicine would be set forth. This followed the Chinese ways in Theory, Treatment, Prescription and used 'Hyang Yack' in Medication out of theory of Korean medicine, which was a transitional form. So this is an important material which tell us aspects of development of 'Hyang Yack' since the middle of Korea Dynasty.and this is also the beginning of originative, medical works like Dong-Eui-Bo-Kam(東醫寶鑑),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7. There are few contents based on "Byen-Jeung-Lon-Chi(辨證論治)" in this book. So we can see this book is not for doctors who study medical thoughts but for general public who suffer from diseases resulted from war. Because this book was written for a first-aid treatment, this is an index of medical service for the people those days. And this is also an useful datum for first-aid medicine or military medicine in these modern days.

8. Nowadays, parts of learned world of Korean medicine disregard essential theories and want to explain Korean medicine only by the theories or the methods of Western medicine. Moreover they don't adopt Chinese and Japanese theoris & thoughts about Oriental medicine in our own style and just view in there level. What was worse, there is a growing tendency for them to indulge in a trimming policy of scholarship and to take others' ideas. I think these trends to ignore our own medical thoughts involving growth of 'Hyang Yack' in the middle of Korea Dynasty, Dong-Eui-Bo-Kam and Dong-Eui-Su-Se-Bo-Won. So we, as researchers of Korean medicine, must get out of this tendency, and take over brilliant tradition and try to develop originative Korean medicine.

【Key words】 oldest medical book, herbalogy, traditional medicine, drugstuffs

I. 序 論

高麗時代 中葉부터 일기 시작한 鄕藥은 韓國醫學史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鄕藥’은 단순히 ‘어느 고을에서 나는 약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藥名이 아니라, 우리나라 傳統醫學이 설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 바다와 강에서 나는 모든 藥材에 대한 總稱으로, 중국약인 ‘漢藥’ ‘唐材’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藥名이다.¹⁾ 이는 陰陽五行理論에 立脚한 우수한 醫學理論을 받아들여 高麗醫學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中國의 것을 그대로 踏襲하지 않고, ‘理·法·方’은 中國의 것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藥’에 있어서만은 우리나라의 것을 쓰는 過渡期的인 醫學形態이나 독자적인 醫學을 創出하기 위한 始發點이라 할 수 있다. 12세기 이후에 ‘鄕藥’이라는 名稱이 쓰이고 鄕藥에 기초한 傳統醫學의 발전함에 따라 『鄕藥救急方』 『三和子鄕藥方』 『鄕藥古方』 『鄕藥惠民經驗方』 『鄕藥簡易方』 등의 鄕藥方書가 출현하게 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醫學 확립에 기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鄕藥救急方』은 현존하는 한국 最古의 醫書로 고려시대 의학 및 鄕藥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本 論

1. 出版時期 및 板本

1-1. 著者 및 出版時期

『鄕藥救急方』의 著者は 현재로서는 고찰할 수 없다.

그러나 編纂된 時期에 대해서는, 現在 日本의 宮內廳 圖書寮에 所藏된 木板本の 跋文에, “昔大藏都監, 刊行是書.(옛날에 大藏都監에서 이 책을 간행했다.)”²⁾이라고 쓰인 것을 볼 때, 本方書는 高麗時代 江華島에 설치한 大藏都監에서 刊行된 것이므로 編纂된 時期를 大藏都監의 設置期間인 高宗 19年(A.D.1232)에서 高宗 38年(A.D.1251)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2. 板本

本方書의 原刊本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日本 宮內廳 圖書寮에 所藏되어 있는 것은 跋文에 “今義興監郡崔侯自河, 思欲重刊以廣其惠, 乃出私藏善本, 告諸監司李公之剛, 而監司即命鋟梓于崔之任縣, 以遂其志, 乃以閏五月始役, 至七月十二日斷手焉. (오늘에 이르러 義興監郡인 崔自河가 이 책을 重刊하여 醫療의 惠澤을 넓히고자 생각하고 개인이 갖고 있던 알아보기 좋은 版本을 꺼내어 監司인 李之剛에게 告하니 監司가 즉시 崔自河의 任縣에 鋟梓할 것을 命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였다. 이에 閏 五月에 작업을 시

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서울: 청년세대, 1989, 113.

2) 韓國醫學大系(卷1),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103.

작하여 七月 十二日에 마치게 되었다.)----皇明永樂丁酉七月 日”³⁾이라 쓰여 있으므로, 朝鮮 太宗 17年(A.D.1417) 7월에 崔自河가 私藏한 大藏都監本을 監司 李之剛에 請하여 그의 任地인 慶尙道 義興縣에서 重刊한 것이다.

『世宗實錄』에는 “世宗九年丁未九月十一日, 前判羅州牧事黃子厚, 啓鄉藥救急方, 印出分於外方, 以廣求生之路, 遂命送于忠清道刊行.(世宗 9年 丁未(A.D.1427) 9月 11日 前判인 羅州牧事 黃子厚가 『鄉藥救急方』을 印刷하여 外方에 頒布하여 生命을 求하는 길을 넓히기를 啓(請)하니 마침내 命하여 忠清道에 보내서 刊行하게 하였다.”⁴⁾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世宗이 鄉藥의 發展을 위해 本方書를 널리 頒布하고자 重刊한 것이나 現在는 傳하여지지 않는다.

本方書가 高麗中期 蒙古가 侵入한 때에 出刊된 것은 戰亂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疾病을 治療하기 위함이니, 당시에는 醫師들의 정상적인 診療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本方書가 國民保健에 끼친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또한 朝鮮朝에 두번에 걸쳐 重刊된 것을 보면 朝鮮初期까지도 백성들에게는 專門人에

藥物名	鄉藥救急方 方文	方中鄉藥目草部	藥物名	鄉藥救急方 方文	方中鄉藥目草部
當歸	黨飯菜根	且貴草	威靈仙	狗尾草,能消草	車衣菜
窮芎	芎芎草	蛇休草	皂莢	注也邑	鼠厭木
商陸	者里宮	章柳根	車前子	大伊古皮	吉刑菜
柴胡	青玉菜,猪矣水乃立	山叱水乃立	葶藶子	豆木乃耳, 豆音耳	豆音矣薺
蛇牀子	蛇牀菜子	蛇音置良只	浮萍	魚食	蛙食
郁李人	山叱伊賜羅次	山梅子	薏苡根	豆訟, 月乙每	伊乙梅
反魂	迨加乙	地加乙	雀麥	鼠矣包衣	鼠苞衣
蒲黃	蒲槌上黃粉	助背槌	薺萋	獐矣扣次	獐矣皮
藻菜	馬乙	勿	蒼耳子	伏古千伊	石古休伊
菖蒲	消衣羅	松衣羅	漆姑	漆矣老母,漆矣於耳	漆矣母
通草	伊乙吾音蔓	伊乙烏音	蓖麻子	阿叱加伊實	阿次加伊
黃芩	所邑朽斤草	精朽草	黃蓍	甘板麻	數板麻
京三稜	結次邑笠根	結叱加次根	括藎	天原乙	天乙
菹	浮菜	厚菜	瞿麥	石竹花	鳩目花
蚯蚓	居毛	居兒乎	大麥	包衣	包來
獨走根	勿叱隱阿背	勿兒隱提良	藺茹	烏得夫得	五得浮得
馬齒莧	金非陵音	金非音	半夏	雉矣毛老邑	雉矣毛立
百合	大伊那里花	大乃里花			

3) 前掲書, P.104.

4) 李朝實錄(第7冊),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6, P.557.

의한 醫療惠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알 수 있으니 高麗中期부터 朝鮮初期까지의 醫療水準을 研究하는데도 중요한 資料가 된다.

1-3. 方文科 方中鄕藥目草部

現在 전해 내려오는 重刊本이 原刊本을 그대로 編寫한 것이라 하지만 藥物에 대한 우리말의 吏讀式 表記가 『鄕藥救急方』의 本文에 나오는 ‘鄕名’과 「方中鄕藥目草部」의 ‘俗云’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다른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上記 內容을 볼 때, 『鄕藥救急方』의 上.中.下 三卷과 「方中鄕藥目草部」는 編纂된 時期가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두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의해 같은 時期에 쓰여졌다면 서로 다른 鄕藥名을 表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原刊本에는 없었던 것이 重刊하면서 挿入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原刊本에 없던 것을 重刊本에 挿入했다는 것은, 重刊한 崔自河가 醫學에 그만한 造詣가 있었다고 여기지지 않는 데다, 그는 醫學을 研究하는 官吏가 아니고 行政官이므로 단지 百姓을 救恤하는 政策의 하나로 이 書籍을 重刊하여 百姓들 스스로 그들의 疾病을 治療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上 中 下 三卷의 藥名 아래에 吏讀文字로 우리가 부르는 藥名을 記錄함에 있어서, 本方書의 方文에서는 ‘鄕名’이라 하였고 「方中鄕藥目草部」에서는 ‘俗云’이라 하였는데, ‘鄕名’과 ‘俗云’에 意味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鄕名’은 高麗時代에 中央이나 國家事業 등의 경우에 쓰여졌던 藥物에 대한 우리말의 表記일 것이며, ‘俗云’은 各 地方 마다의 藥草를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朝鮮世宗代에 編纂된 『鄕藥集成方』에서도 『鄕藥救急方』을 引用한 內容이 많으나, 「鄕藥本草各論」에서는 「方中鄕藥目草部」의 內容을 引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編纂者가 다를 수 있다는 說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本方書의 方文科 「方中鄕藥目草部」가 같이 붙어 있기는 하나 別個의 冊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거나 아니면 다른 時代에 쓰여진 것을 崔自河가 重刊할 당시에 方文科 함께 出刊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4. 「鄕藥集成方」에 나오는 本方書의 缺文

『鄕藥集成方』에서는 本方書를 引用하여 쓴 方文 가운데 현재 전해오는 重刊本에 나타나지 않은 7方文이 脚氣門, 諸咳門, 頭門, 産難門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脚氣門

治脚腫, 心腹脹滿, 大小便不通, 冬麻子半升炒搗研水瀹取汁, 米二合, 右和作粥, 空心食之.⁵⁾

5) 鄕藥集成方全,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P. 81.

諸咳門

治咳嗽，藍漆去莖葉，細末，每服三錢，酒調，飽食後頓服。⁶⁾

頭病門

治頭風裂痛，香附子爲末，每服三錢，臘茶調下，食後日三五服。⁷⁾

産難門

治産難，眞油二鍾，調木麥麵，如稀糊，頓服即下，效。

治難産，及胞衣不下，新牛屎，塗産婦兩乳間，即下神驗，産下後即洗去，遲則腸隨出。(取新屎法，牛性牽出，則放尿.)

治難産，蓮花葉一片，書作人字，吞之立即出。

又方，大豆七枚，紅藍花，水煮取汁，溫服三鍾，即下。⁸⁾

治子死腹中，蓮花葉，燒灰，以水調下一錢，

又方，以手執夫帶云，父入子出，如此二七遍，即下。⁹⁾

이상의 7方文이 重刊本에서 脫漏된 것은 重刊本の 跋文에 “昔大藏都監 刊行是書，歲久板朽，舊本罕見.(옛날에 大藏都監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는데，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판이 이지러지고 구판본은 잘 보이지 않는다.)”¹⁰⁾이라 한 것을 볼 때，崔自河가 私藏한 原刊本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完全한 것 만을 重刊하였기 때문에 빠진 것이며，이 7方文 이외에도 더 많은 脫漏된 方文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世宗朝에 『鄉藥集成方』을 編纂할 당시 『鄉藥救急方』의 모든 方文을 引用하지는 않았는데도 脫漏된 方文이 『鄉藥集成方』에서 引用된 것 중의 7개이기 때문이다.

2. 編制와 內容

2-1. 編制

『鄉藥救急方』의 編制는，書目 및 上中下三卷에 「方中鄉藥目草部」를 加하여 一冊으로 되어 있으며，跋文만 있고 序文이 없는데 앞 뒤의 표지를 합쳐 5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方書의 目次는 上卷이 18目，中卷이 25目，下卷이 12目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6) 前掲書, P.183.

7) 前掲書, P.220.

8) 前掲書, P. 474.

9) 前掲書, P. 476.

10) 韓國醫藥大系(卷1), P.103.

書目

上卷

食毒	肉毒	菌毒	百藥毒
螫毒	骨鯁	食噎	卒死
自縊	熱喝	落水	中酒
斷酒	墮折	金瘡	喉痺
重舌	齒蚘		

中卷

丁瘡	癰疽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
癩疹	代指瘡	癰疽	附骨疽
癩疥癩瘡	箭鏃木竹籤刺	痔漏腸風	心腹痛
冷熱痢	大便不通	小便不通	陰癩陰瘡
鼻衄	眼病	耳病	口唇病

下卷

婦人雜方	小兒雜方	小兒誤吞諸物	水腫
中風	癲狂	瘡疾	頭痛
雜方	服藥法	藥性相反	古傳錄驗方

方中鄕藥目草部

跋文

各 題目 아래에는 두 줄로 注를 달아 그 疾病에 대해 간략히 解說하고, 種類, 服藥方法 등을 간략히 說明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內容은 中國의 方書 內容을 적은 것도 있고, 病名을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은 그 病證에 대한 우리말을 吏讀로 표현한 것도 있다.

本方書에서 引用한 處方은 이 시대 이전에 編纂된 醫書, 즉 『千金要方』, 『外臺備要』, 『經驗良方』, 『肘後備急方』, 『太平聖惠方』, 『普濟本事方』, 『蘇沈良方』, 『備預百要方』 등에서 變證을 하지 않고도 쉽게 쓸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藥材로 構成된 處方을 選擇했으며 대부분 通治方을 爲主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備預百要方』을 引用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處方 가운데 여러 方書에서 보이나 用量이나 服用方法이 조금 다른 것은 『備預百要方』을 따르고 있으며, 病名에 대한 解說이나 分類도 『備預百要方』을 轉寫하다시피 重用하고 있으니, 本方書는 『備預百要方』을 重要 依據書로 삼고 다른 方書를 參照 添削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¹¹⁾ 비록 우리나라에서 編纂된 方書라고 하지만 方文의 內容이 거의 대부분 中國의 것을 그대로 引用

11) 崔銀煥 李英澤, 우리나라 最古醫書인 鄕藥救急方の 引用文獻에 관한 考察(綜合醫學 Vol. 9, No4.), 1964, P.118. 참조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獨自의인 處方의 內容은 몇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의 醫學 水準은 中國醫學 理論을 답습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2-2. 內容

本方書의 內容을 살펴보면, 疾病을 分類하고 나타나는 症狀에 따라 處方을 달리하고 있지만 辨證論治에 立脚한 것이 아니며, 단지 症狀에 따라 그 症狀에 해당되는 藥을 列擧하는 對症療法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 列擧한 中國의 醫書中에 『肘後方』을 제외한 모든 書籍들이 病名의 아래에 論을 달아 病因 病機 治法 등을 열거하고 있어 病症들에 관해 醫學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本方書에서는 菌毒, 淋疾, 心腹痛 등의 몇몇의 條文에서만 簡略한 論을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條文에서는 處方의 內容과 服用方法만을 列擧하고 있다. 上記한 위의 條文에서도 論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疾病에 대한 病因 病機 등에 대해 자세한 것을 論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種類를 羅列한 것에 불과하며, 더우기 分類한 疾病에 대한 각각의 處方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論治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本方書는, 醫師를 敎育하거나 醫學理論을 研究하게 하는 目的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단지 窮村僻巷의 醫師가 없는 곳에서도 一般大衆 누구나 간단하게 治療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救急法이나 간단한 治療方法을 모아놓은 民間救急方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高麗中期에는 科擧制度 안에 醫業式과 呪噤式이 있었는데, 여기의 受驗科目에는 『素問』, 『甲乙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難經』, 『灸經』 등의 科目이 있었으므로¹²⁾ 科擧를 준비하는 醫生들은 醫學理論이 체계적이며 잘 정리된 위의 서적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本方書에는 中風條의 “理虛肥, 積年氣上, 如水病, 面腫脚不腫方, 楮葉, 以水一升, 煮取六升, 去滓, 納米煮粥喫.”의 注에 ‘素問云, 面腫曰風.’¹³⁾이라고 한 것 이외에는 전혀 上記한 書籍의 內容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더욱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本方書의 方文中에는 烏雞, 蟹, 白魚, 蛻螂, 地龍 등을 쓰는 處方이 나오는데, 모두 藥物 뒤에 “惡傷(物)命, 今不具注.(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므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¹⁴⁾라고 쓰여 있어 殺生을 하여 生命을 求하는 方法을 기피하고 있으니, 『千金要方·太醫精誠』에 나오는 “夫殺生求生, 去生更遠, 吾今此方, 所以不用生命爲藥者, 良由此也. 其虻蟲水蛭之屬, 市有先死者, 則市而用之, 不在此例, 只如雞卵一物, 以其混沌未分, 必有大段而要急之處, 不得已隱忍而用之, 能不用者, 斯爲大哲.(무릇 동물의 생명을 죽여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데서 더욱 멀어지니 내가 지금 이 책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약으로 쓰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 이다. 죽은 등어나 거머리와 같은 것들이 시장에 있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쓰는 것은

12)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78.

13) 韓國醫學大系(卷1), 서울, 麗江出版社, P.79.

14) 前掲書, PP. 65, 65-1, 66.

이러한 예에 속하지 않지만, 단지 혼돈의 상태로 아직 분화하지 않은 달걀과 같은 하나의 물건도 반드시 대단히 필요로 하거나 급한 곳이 있어야만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이러한 때도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훌륭한 의사이다.)”¹⁵⁾의 뜻과 相通한다. 上記한 本方書의 內容도 編纂 當時에 佛敎가 國敎로서 盛行하여 모든 學問이나 思想에서 많은 影響을 주어 비롯된 것이며, 특히 佛敎의 五戒中에 不殺生의 戒律을 實踐하고자 한 努力으로 看做된다. 이러한 점은 三國時代 이후로 佛敎가 傳來되어 既存에 있던 모든 分野의 學問과 思想에 影響을 주었으므로 醫學에 있어서도 이러한 影響을 받았다는 證據가 된다.

本方書에서 題目에 ‘鄉藥’이라는 단어를 쓰고 「方中鄉藥目草部」에서도 韓醫學에서 흔히 쓰는 ‘本草’라는 말 대신에 ‘鄉藥’(自國產 藥材의 總稱)이라 하고 각각의 藥物 다음에 俗名을 添加한 것을 보면 단지 알아보기 쉽게 한다는 이유만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疾病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藥材로 치료할 수 있다는 宜土性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醫學을 自主的인 方向으로 발전시키는 基礎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中國의 陰陽五行理論에 立脚한 우수한 醫學理論을 받아들여 高麗醫學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中國의 것을 그대로 踏襲하지 않고, 「理·法·方」은 中國의 것을 따르더라도 「藥」에서만은 鄉藥을 쓰는 過渡期的인 形態이나 獨自的인 醫學을 創出하기 위한 努力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鄉藥의 발달은 이제까지의 中國醫學의 틀에서 벗어나 固有醫學의 形態를 잡고자 하는 初期段階의 自求策으로 보여지며 후에 『東醫寶鑑』이나 『東醫壽世保元』과 같은 獨創的인 한국의 醫書가 나오게 되는 母胎가 된다.

3. 方中鄉藥目草部

『鄉藥救急方』의 上·中·下 三卷 뒤에 「方中鄉藥目草部」가 있는데, 여기에는 180種의 國產 藥材의 俗名, 氣味, 毒의 有無, 鑑別法, 修治, 採取時期 등을 說明하고 있다. 俗名은 吏讀式으로 쓰고 있는데, 本文에 나오는 鄉名과 여기에 나오는 俗名이 商陸, 柴胡, 威靈仙, 車前子, 蒲黃, 窮芎, 當歸 등의 상당부분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方中鄉藥目草部」의 主要內容은 『本草經集注』를 그대로 옮겨 놓았거나 조금 變形시킨 것이며, 특히 採取時期는 다른 어느 것보다 『圖經本草』의 說을 따르고 있다. 氣味, 毒性, 主治의 部分은 주로 『本草經集注』를 따랐고, 修治, 採取時期는 『圖經本草』에서 따온 것이 많다. 磁石의 內容을 보면 ‘東州에서 나온다.’¹⁶⁾라고 했으니, 東州라는 中國 地名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의 두 書籍을 參考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本草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書籍 및 몇몇의 本草書를 綜合하여 만든 宋代 『證類本草』中의 어느 한 책을 보고 取舍 選擇하여 그대로 옮긴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俗名

1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

16) 韓國醫學大系(卷1), 서울, 麗江出版社, P.102.

을 달아 一般大衆이 누구나 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採取時期, 修治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약을 쉽게 採取하여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方中鄉藥目草部」에서 藥物을 나열한 순서는 대체적으로 『證類本草』의 順序에 따랐으나, 草部이외의 石部·禽部·獸部·蟲部·魚部·人部·木部·菜部·穀部 등의 藥物을 나열하는데는 『證類本草』의 配列順序를 따르지 않고 서로 混合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證類本草』나 기타 모든 本草書에서 草部の 中品에 나오는 天門冬 하나만은 「方中鄉藥目草部」의 맨 뒤에 따로 놓여 있으며 그 說明이 다른 것보다 자세한 것¹⁷⁾은 編纂하는 중에 빠져 나중에 補闕한 것으로 보여진다.

上記한 內容을 볼 때, 「方中鄉藥目草部」는 「方中鄉藥目」이라 題目을 하고 各部를 나누어 『證類本草』의 次例에 따라 整理 編纂하였는데, 草部の 것들은 제목아래에 羅列 說明하고, 草部 이외의 藥物은 수가 적으므로 各部의 제목을 쓴 다음 그 아래에 나누어 編纂하지 않고, 제목이 없이 바로 草部の 아래에다 整理하였기 때문에 「方中鄉藥目草部」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4. 現代 醫療에서의 應用.

現代人들은 分業化된 사회에서 활동함에 따라 각자의 專門分野만을 알고 다른 分野에 대해서는 그 分野의 專門人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그들이 主張하는 理論이나 方法 등에 대해 생각도 해보지 않고 無條件으로 믿고 따른다. 물론 人間의 基本的인 生活과 關係가 많지 않은 特殊한 分野의 것이라면 그리하여도 社會生活을 營爲하는데 큰 障礙가 없겠지만, 자신의 健康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조차도 ‘專門 醫療人’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들에게 자신의 健康에 관한 모든 것을 批判없이 내던지고 있는 것이 커다란 問題이다.

아울러 現代人들은 조그만한 疾病이라도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根本 없는 醫學知識을 동원하여 스스로 病名을 規定짓고 藥을 파는 곳에 가서 자신이 결정한 藥을 구입하여 과다하게 服用하는 경우가 많아 藥物의 誤濫用으로 인해 제2의 疾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藥들이 長服을 하여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化學的으로 抽出한 毒性藥物이 많아 藥物中毒으로 인해 健康을 해치고 生命을 재촉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本方書는 현재 藥物의 誤濫用으로 인한 被害를 막을 수 있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으므로 現代人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專門醫療人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갑자기 급한 病이 났는데 醫療人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救急法과 간단한 治療方法을 提示하여 患者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쉽게 處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應急醫學이나 軍陣醫學

17) 前掲書, PP. 99-102.

등에 있어서 상당한 利用價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本方書의 내용중 病症과 藥物의 우리말 表記(吏讀)는 ‘鄕名’과 ‘俗云’의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의 내용이 현재 불려지는 病名이나 藥名과 같은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하지만 筆者는 吏讀에 대한 견해가 알아 정리하지 못하였니, 이에 관해 造詣가 깊은 사람이 앞에서 말한 洪의 論文이나 吏讀에 관한 것을 參照하여 本方書에서 쓰여진 病症이나 藥物에 대해 정확한 우리말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課題라고 밝혀둔다.

III. 結 論

『鄕藥救急方』은 高麗 中葉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固有의 醫書로, 이의 醫史學的 價値에 대한 새로운 照明이 필요하여 復原하고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鄕藥救急方』은 高麗中葉에 江華島의 大藏都監에서 刊行되었으며, 原刊本을 바탕으로 朝鮮 太宗 17年 (A.D.1417年) 7월에 慶尙道 義興縣에서 崔自河가 重刊하였고, 世宗 9年(A.D.1427年)에 忠淸道에서 重刊되었는데 그 중 太宗 때에 重刊된 것이 日本 宮內廳 圖書寮에 所藏되어 있는데, 이것이 現存하는 韓國 最古의 醫書이다.

2. 本方書의 「方中鄕藥目草部」는 원래 「方中鄕藥目」으로 題目하고 各部를 나누어 整理하려고 했으나, 草部만 『證類本草』의 編纂 順序를 따랐을 뿐 나머지는 각각의 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모두 모아 草部の 아래 나열하여 「方中鄕藥目草部」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本方書에서 보이는 몇몇 藥物에 대한 우리말 表記가 上·中·下 三卷의 方文中에서 나타나는 ‘鄕名’과 「方中鄕藥目草部」에 나타나는 ‘俗云’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아 方文과 「方中鄕藥目草部」의 編纂者가 다르거나 아니면 編纂된 時期가 다르다고 推定되며 崔自河가 重刊할 당시에 上·中·下 三卷의 方文 뒤에 「方中鄕藥目草部」를 붙혀 出刊한 것으로 생각된다.

3. 本方書는 『千金要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肘後方』, 『經驗良方』, 『普濟本事方』, 『備預百要方』 등의 內容中 通治方이나 우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藥材로 되어진 處方을 拔萃하여 놓은 것과 몇몇 우리 固有의 處方을 모아 編輯하였는데, 대체적으로 『備預百要方』을 重要 依據書로 삼고 여기에 다른 方書를 參考 添削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4. 『鄕藥集成方』에서 本方書의 내용을 引用한 條文 가운데 本方書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脚氣門, 諸咳門, 頭病門, 産難門 등에서 7條文이 있는데, 이는 崔自河가 私藏한 大藏都監本이 완전하게 잘 보이지 않으므로 그 중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을 골라 重刊했기 때문이니, 현재 전해 내려오는 重刊本은 原刊本에 비해 내용이 어느정도 脫漏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 本方書의 내용중에 烏雞, 蟹, 白魚, 蛻螂, 地龍 등의 動物性 藥材가 나오는 곳의 모든 條文에는 藥物名만 있고 ‘惡傷(物)命今不具注(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므로 자세

한 방법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여 服用方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國敎인 佛敎의 思想이 醫學에 영향을 준 것으로 五戒 가운데 不殺生의 戒律을 實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6. 本方書는 우리나라 固有의 醫學을 創出하려고 하는 時期에 나왔기 때문에 韓醫學의 辨證論治理論에서 「理·法·方」은 中國의 것을 따르고 「藥」만은 鄉藥을 쓰는 過渡期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固有의 醫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高麗 中葉으로부터 鄉藥이 어떠한 樣相으로 발전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資料가 되며, 후에 『東醫寶鑑』이나 『東醫壽世保元』과 같은 우리나라의 獨創的인 醫書가 나올 수 있게 하는 母胎가 되었다.

7. 本方書의 方文에 辨證論治에 入脚한 內容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本方書는 醫學理論을 研究하는 醫師들을 위한 方書가 아니라 戰禍로 인한 疾病의 고통을 一般大衆들이 손쉽게 處置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民間救急方이므로, 당시에 국민들이 입은 醫療惠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尺度가 되며, 아울러 現代의 應急醫學이나 軍陣醫學에서 緊要하게 사용할 수 있는 方書라고 생각된다.

8. 현재 韓醫學界 일부에서는 韓醫學 本來의 理論을 도외시하고 西洋醫學의 理論이나 方法만으로 韓醫學을 證明하려 하고 있고, 또한 현재 中國이나 日本의 韓醫學 理論이나 思想을 우리의 것으로 消化하지 못하고 그대로 踏襲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學問의 事大主義에 빠져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남의 것만을 취하려 하는 風潮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는 高麗時代 鄉藥의 胎動과 그 후 『東醫寶鑑』이나 『東醫壽世保元』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固有의 뛰어난 醫學思想을 저버리는 일이라 여겨지므로, 韓醫學을 研究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훌륭한 傳統을 繼承하고 獨創的인 韓醫學 發展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1. 書誌學(卷6,第6號), 東京, 書誌學社, 1942.
2. 李朝實錄,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6.
3. 韓國醫學大系, 서울, 麗江出版社, 1988.
4. 科學百科辭典綜合出版社; 再編輯東醫學辭典, 서울, 까치, 1994.
5. 郭靄春; 中國分省醫籍考, 天津中醫學院,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4.
6. 橋井清五郎; 古刻之一異例 韓版鄉藥救急方(書誌學 6卷 6號), 東京, 書誌學社, 1942.
7.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서울, 探求堂, 1982.
8.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9.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10. 金禮蒙 外;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11. 唐愼微; 證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2. 方詩銘; 中國歷史紀年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0.
1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14.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 學術圖書刊行會, 1956.
1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 1962.
16. 蘇軾 外; 蘇沈良方(中國醫學大系 卷六), 서울, 麗江出版社, 1987.
1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8. 孫弘烈; 韓國中世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7.
19. 安德均 註解; 鄉藥採取月令,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83.
20.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21. 俞孝通 外; 鄉藥集成方,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22. 장지영 외; 이두사전, 서울, 도서출판산호, 1991.
23. 鄭勉; 高麗醫學의 自主性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敎碩士學位論文, 1988.
24. 崔鎮煥 外; 우리나라 最古醫書인 鄉藥救急方の 引用文獻에 關한 考察(綜合醫學 Vol.9 No.4), 1964.
2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韓國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4.
27. 洪文和; 우리의 吏讀鄉藥名이 日本의 本草學에 미친 影響(生藥學會誌 제3卷 제1號), 서울, 197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